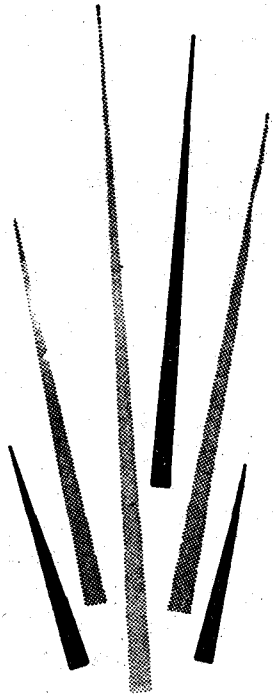




세계 최대의 설탕이 올 것인가?

編輯室



1969, 70年度 全世界 7,100만톤 생산

雪糖은 지금 세계적으로 騰貴를 繼續하고 있는데 런던市場의 國際時勢는 1963~64년에 걸쳐 기록적인 暴騰(1 噸당 105 파운드)된 然後 急激히 하락하고 한참동안은 20~30 파운드로 安定되었었는데 1969년부터는 漸次 상승 올해는 7年만에 50파운드 선을 넘고 있다.

英國의 經濟專門紙「Financial Time」는 최근 특집으로 이러한 세계적 雪糖不足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도하고 있다.

“雪糖戰爭”의 직접적인 원인은 간단한데 금년 1/4 分期用 白雪糖의 流通이 갑자기 부족해졌기 때문이다. 예를들면 리비아와 세이론은 1月中旬, 많은 설탕을 살려고했지만 결국 그 몇일전 이스라엘이나 시리아가 購入할 때 보다 多少비싼 가격으로 사지 않으면 안되었고 필요한 만큼의 量을 전부 入手할 수가 없었다.

市場에서 왜 이러한 움직임을 보였는가 함은 쉽게 이해할 수가 있다.

세계의 설탕이 부족된 가장 가까운 해인 1963년의 暴騰勢는 短命이었는데 이는 각계각지의 생산국에서 값이 비싸게 됨을 기화로 増産에 힘써서 삼 시간에 需給關係는 逆轉되고 많은 在庫量에 苦惱하는 시대에 突入하고 말았기 때문이다.

현재는 거기에서 回復過程에 있다고 보겠다.

1963년부터 현재에 이르는 사이에 最惡의 시기는 1967年 1月 이었는데 그 당시 런던市의 時勢는 1 噸當 12.5 파운드까지 하락했고 그 당시는 설탕을 가축들의 사료용으로 팔기도하여 難關을 극복해 나갔지만 전망은 밝지 못 하였다.

英國은 年 200만톤 輸入

만약 설탕이 완전한 自由市場에 있었다면 過剩生産이 6年半이나 繼續되었을 이유가 없었고 需要와 供給의 平衡은 自動적으로 調整되고 효율적 이 못 되는 생산자는 破産을 하든가 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설탕市場은 그러한 自由市場이라는 概念에서 距離가 먼 곳에 있으며 생산자의 거의는 정부에서 補助金을 받든가 확고하게 보호된 國內市場을 갖고 있든가 하여 多少의 支援를 받고 있으므로 해서 결과적으로 生産은 若干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는데 1969-1970년도의 경우는 세계 전체에서 7,100萬噸의 설탕이 생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경을 넘어 세계市場에 진출한 것은 불과 2,000萬噸에 지나지 않았고 그 2,000萬噸中에는 불려서 計算된것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위에 수출되는 설탕의 折半以上은 英連邦 설탕

英, 國際市場 時勢 영향 안 받아

協定, 美國 설탕法, 蘇聯과 淸-바간의 條約等과 같은 소위 "特惠貿易"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결과 수입국은 製造者, 消費者에 있어서 公正하다고 보여지는 협정가격 밑에서 장기적으로 일정한 설탕을 사드릴 의무를 갖게 하였다.

예를 들자면 英連邦 설탕協定の 경우, 英國은 1 噸當 42 파운드에서 50 파운드의 價格(個個의 生産者에 따라 다르며 發展途上國은 많이 支払됨)으로 매년 약 200萬噸 가까이 輸入한다는 제약이 되어 있다.

금년도 총 생산은 7310만톤

그러므로 家庭主婦가 설탕을 사는데 殺到할 필요가 없고 英國에서는 英聯邦의 生産국에서 수입한 설탕과 국내에서 取할 수 있는 비-도에서 설탕(約 100萬噸)으로 實際 國際市場이 형성되므로해서 國時勢에 무엇이 달라지든 간에 직접 影響을 안받게 되었다. 그래서 英國의 경우, 小売店의 가격이 작년보다 높다고 하면 그것은 原糖의 가격인상 때문에 精製等의 加工料나 流通價格의 인상 때문인 것이다. 현재 설탕市場을 시끄럽게 하고있는 가격의 변동도 이와같은 特惠協定 때문이 아니고, 輸入后의 要因에 따른 것이다.

소위 世界市場이란 설탕의 경우는 수출국이 特惠市場에 配當分을 수출하고 남은 것으로 형성되므로 時勢의 動向도 多少 몇 대로 激動된다고 말할 수 있다.

과거를 되돌아 보면 1964年과 1968年 사이의 世界市場은 剩餘 설탕의 放売時代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었다.

그동안 60年代 初期에 崩壞된 대로였든 國際 설탕協定을 再出發시키도록 시도는 몇 차례 있었지만 한 편에서는 생산국이 유리한 조건으로 수출할 수 있는 特惠配當을 最大限으로 채우기 때문에 설탕生産을 능력껏 持續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결과 自由市場에서의 이익은 적고 그 영향으로 特惠販賣쪽의 이익도 淸스탄트에 侵食되는 것처럼 되었다.

새로운 조약을 만드는 데는 많은 障害가 있었고 그 가운데서 오-스트라리아, 브라질, 淸-바, 南 아프리카 共和國, 蘇聯等 세계의 주요 생산국을 같은 테이블에 앉이기에는 정치적으로 큰 곤란을 겪었으나 結局 경제적 이익편이 정치적 곤란을 이겨내서 1968년 말 새로운 國際 설탕協定이 締結되고 다음해인 69년부터 효력을 발생하게 되었든 것이다.

이번 協定은 본질적으로는 단순하지만 수출국은 각각 종래 갖고있는 世界市場의 畵아에 의해서 수

출매당을 받게 되는데 수출국과 수입국이 매년 담합하여 世界市場은 어느 정도 설당을 필요로 하는가를 결정하고 그 量을 수출국의 기본배당에 비례해서 분배하는 것이며 협정은 시장을 배정함에 따라 설당가격을 최저 1 吨당 34파운드에서 최고 52 파운드 사이를 유지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가격의 변동에 따라 공급을 조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새 협정은 지금까지는 의심할 나위없이 성공한 셈이다. 런던市場의 예로서도 알수있듯이 1969年 이후 설당은 남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합리적인 범위로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

이시에 이협정 때문에 이미 최근 수개월 세계의 생산과 소비, 재고의 사이에 기본적인 Balance가 개선되고 있는것도 사실이다.

앞으로 세계전체의 수급관계에 대하여는 최근발표된 F. O. Licht의 것이 주목되며 이에 따르면 금년도 설당 총생산은 7,310万吨, 消費는 7,490万吨이며 만일 그대로 된다면 세계의 재고는 180万吨이 줄어든다는 결론인데 180万吨이라면 많은 量이지만 Licht에 의하면 이번 씨-존의 초에는 세계의 재고의 2,140万吨이므로 아직 1,960万吨쯤은 남는 결과 된다고 한다.

輸出國은 제가금 增産 계획

그러나 현재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공급 pipe-line이 smooth하게 運用될려면 약 3개월의 소비를 채우는 量의 설당(1,800万吨内外)가 필요하다고 일반적으로 말할 수 있지만 그러한 의미에서 본다면 1960万吨이라고 하지만 아직 남아 돈다고 볼 수 없는 상태라 하겠다.

그러나 내년도 부터는 다소 사정이 달라질 기미를 보이는데 일부의 開發途上國에서의 수요감소가 예상된다고 하지만 세계 전체의 소비는 적어도 7,700万吨에 달할 것으로 보고있다.

만일 전쟁소비의 평균신장율이 연 4%가 내년도 그대로 계속될 것으로 본다면 보다 많은 숫자가 될 수도 있겠으나 생산쪽은 아무리 버티어 보아도 이 수요를 공급하기란 불가능 할것이다.

어떤 나라에서 재고를 많이 보유하고져 새로운 설당협정이 맺어져서 증산에 온갖 힘을 쏟고 있음도 알려져 있으며 오-스트라리아, 모-리시아스, 南아 共和國의 세 나라는 생산을 빠른 속도로 늘키는 조건에 놓였든 세계의 주요생산국이었고 세계 제일의 수출국인 큐-바도 증산을 서두르고 있다.

한편 구라과 제국의 설당수입이 늘어나는가에 대하여는 疑問이며 EEC(歐洲經濟共同体)는 加盟 6개국에 필요로 하는 설당보다 5% 많은 量(不時的 備置用 으로서)을 많은 보조금을 걸고라도 확보하고자 하고있으나 그 전망은 흐리다.

國際時勢쪽은 EEC의 높은 영역의 가격을 상회하여 1 吨당 100파운드는 지금까지의 볼 수 없는 고가에 거래되고 있다고 보아, 수출국의 이익은 더욱 늘어날 뿐이고 동 歐諸國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할 수 있다.

더욱 일부의 나라는 외화를 획득하고자 수출에 더욱 置重하고 있는 실정이다.

많은 관측자들이 설당의 가격이 앞으로 상승할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그 나름의 이유가 있기 때문인데 현재의 백설당 부족은 일시적인 것이므로 이것이 당장 세계적인 “설당기근”에 까지 끌고 갈 것이라고 믿어지지 않는다.

國際설당協定の 움직임이 점차 싹트기 시작 하였기에 사태는 그다지 악화되지 않을 것으로 관망된다.

지난 1月 런던에서 開催된 國際설당機構의 常任理事會 결정에 따라, 만일 1 吨당 50파운드를 초과하는 고가가 繼續되면 2월부터 수출할당은 10% 증가시켜 현재의 100%에서 110%로 引上 시키도록 되어있다.

그렇게 되면 틀림없이 國際時勢를 引下시키는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것이다.